

## 자기 삶이 옳다는 당당한 확신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 회사원 金熙東씨

지금 독서중

요즘 같으면야 누구라 할 것 없이 다들 마찬가지로겠지만, 金熙東씨(34·금강기획 기획3부 차장)에게도

작금의 이 '수상한 시절'이 꽤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막하다. 저마다 목청을 높인 심입심색의 목소리가 온통 뒤범벅이 돼 도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정해줄 만한 공인된 사회적 가치기준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이다.

이런 공인된 사회적 가치의 증발시대에, 그가 틈만 나면 펼쳐보며 스스로를 추스리고 지탱하는 버팀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 플라톤의 「대화」(최명관 옮김, 종로서적), 그중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변명」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마지막 구절은 그가 새삼스럽게 의미심장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하여. 하지만 우리들 중의 어느 쪽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형판결을 받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기에 앞서 아테네법정에서 행한 이 최후진술에서, 김희동씨는 옳게 사는 것에 대한 소크라테스 나름의 확신 같은 것을 엿본다.

“살아남는 당신들보다 이제 곧 죽는 내가 더 좋은 삶, 옳은 인생을 살았다는 당당한 믿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일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린 현대의 우리들로서는 부러운 정신의 높이가 아닐 수 없지요. 어떻게 보면, ‘온세상이 다 취해 있어도 나 혼자만은 깨어 있겠다’던

屈原의 기개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김희동씨가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자신에 대한 당당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된 데에는, 그 스스로 그가 몸담고 있는 직장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주 흔들렸던 경험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다.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첨예한 이익투쟁의 최전선에서, 어쩔 수 없이 양쪽의 샌드위치 꼴이 되고 마는데 따른 일종의 자괴감을 자주 느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이 독선이나 아집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면, 자기 삶이 옳다는 확신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귀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조차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삶이라면 결국 천박하고 추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의 도저한 자기애도 김희동씨는 부럽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재판에서 패소한 것은 자신의 변명이 설득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厚顔과 無恥가 부족해서이고, 정의에 어긋난 양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갈파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진실에 대한 믿음이 강고했던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테네 사람들은 장차 오래도록 현자를 죽였다는 악명을 얻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강철주 기자



## 당신의 근원을 묻는 44가지 이야기 라즈니쉬의 「여기에 살라」

— 직장인 박현숙씨

지금 독서중

화려하게 보이는 길모퉁이 뒤에는 항상 힘들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문을 연지 이제 일년 남짓 돼오는 ‘스위스 그랜드호텔’의 김현숙씨(29·체련부 차장)는 오늘도 담당부서의 구석구석을 살피느라 제대로 쉴 틈 한 번 없이 분주하기만 하다.

객실담당 차장을 거쳐 최근 자리를 옮겨 앉은 그는, 스위스의 호텔경영학교 글리옹(Glion)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돌아온 정통파 호텔인이다. 불문학도였던 그가 약5년 전, 당시로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호텔경영을 본격적으로 배우고자 결심했던 것은 대담한 방향전환이 아닐 수 없겠는데, 박현숙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선택에 만족스러워 한다. 스위스 그랜드호텔에 몸담은지는 개장 전부터인 2년만 정도.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사실 책임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불교와 불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 방면의 책들을 비교적 자주 들춰보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 인도의 명상철학자인 라즈니쉬를 만나게 됐고, 이젠 그의 책 한두권은 반드시 머리맡에 놓아두고 즐겨 읽게 됐지요.”

비교적 서구적인 이미지와 달리 그의 독서취향은 뜻밖에도 상당히 동양적이어서, 요즈음 읽고 있는 책도 라즈니쉬의 「여기에 살라」(류시화 옮김, 김영사, 86)이다.

김현숙씨가 라즈니쉬와 첫대면한 것은 글리옹에 입학하기 전인, 프랑스에서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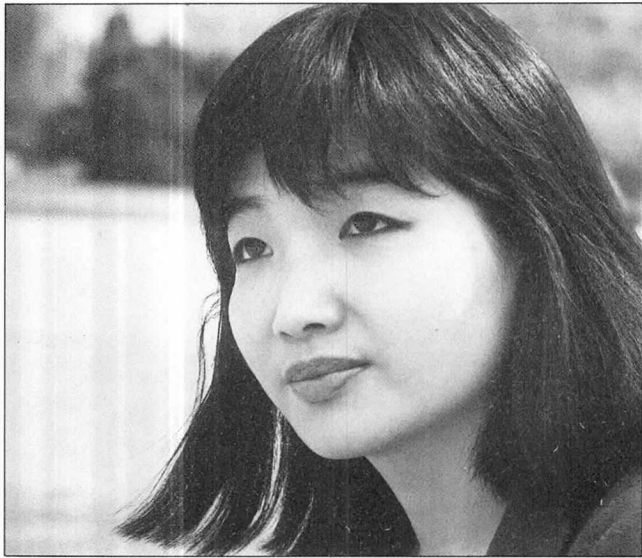
동안 불어교육을 받으면서였다고 한다. 서울로 돌아와 한두권씩 번역서들을 찾아 읽다 보니까 이젠 거의 빼놓지 않고 읽은 것 같다고.

「여기에 살라」는 인간의 근원을 묻는 44가지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라즈니쉬의 가르침을 풀어 내려가고 있는 작품이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왜 이세상에 왔습니까?”라는 첫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질문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마지막 질문에 이르기까지 인간존재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온갖 궁금증들을 풀어주고 있다. 삶이란 그대가 살아야 할 신비이지, 애를 써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다.

“라즈니쉬의 철학은 불교, 인도전통사상, 명상 등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형식을 뛰어넘어 인간본질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은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책의 내용도 물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어 한번 읽기 시작하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김현숙씨는 라즈니쉬의 독특한 매력을 이야기한다.

최근들어 매스컴에 의해 호텔직이 세련된 젊은 여성들의 직업으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현숙씨는 “그런가요?”라고 반문하며 “서비스업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 놓는다. 그래도 그는 마냥 일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미혼여성이다.

—오애리 기자



## 동심의 눈을 통해본 우리들 삶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 아트디렉터 양영희씨

지금 독사중

‘어째서 아이들은 철이 들어야만 하는 건가요?’하고 질문했던 어린 왕자의 눈에는 어른들의 사랑없는

세계가 무척 삭막하게 보였을 것이다. 챗바퀴 같은 생활의 굴레를 돌다가 문득 멈춰보면 무언가 잊은 듯한 공허감. 그것은 아련히 떠오르는 어린 시절, 동심에 대한 그리움 아니던가.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추억을 즐기는 것은 그때문 아니겠나며 양영희씨(32·주부생활사)는 「나의 라임오렌지나무」(J.M. 바스콘셀로스, 박동원 옮김, 동녘)에 대한 감상의 시작을 열었다.

“제제라는 소년은 가난함 속에서도 티없이 맑은 심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천사같은 아이죠. 눈치빠르고 음악하기만 한 요즘 아이들에게서 어른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지도 몰라요.”

6년째 월간 「여성자신」의 아트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양영희씨는 이 책이 타성에 빠질지도 모를 직장생활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보석 같다고 말했다. 이 소설은 브라질의 J.M. 바스콘셀로스가 감수성 뛰어난 다섯살짜리 천재꼬마를 통해 우리들 삶의 사랑과 슬픔의 원초적 조건, 인간과 사물과의 교감, 어린이의 우정을 잔잔하게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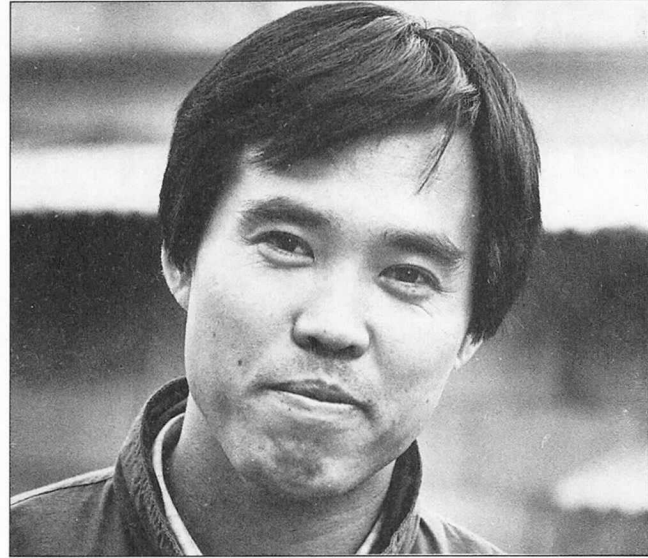
“7년 전에 처음 접하고서는 깜짝 놀랐죠. 막연히 답답함만을 느끼던 내 생활공간 속에서 화답짝 창문을 열어젖혀 마음껏 숨쉴 수 있게 된 기분이었어요. 조그만 꼬마가 거리의 떠돌이 장사꾼 아리오발도와 소유의

개념을 일깨워주는 세실리아선생님, 외국인 아저씨 포르투가 등등을 만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삶 속에 박혀 있는 슬픔을 꺼내보이죠.” 인생의 양면성은 모두가 똑바로 쳐다보길 원치 않지만,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조차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공교롭게도, 이 소설을 너무나 사랑해서 시로 읊고 변안소설도 썼으며 지금은 영화로 만들고 있는 시인이자 영화감독 이세룡씨가 그녀의 남편이다. 같은 직장에서 편집장과 아트디렉터로 만나 결혼했는데, 이세룡씨 역시 오래 전부터 이 소설을 아껴왔으니 둘 사이는 이미 단단한 공감대로 묶여 있던 셈.

“그의 변안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동지, 88)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가 바탕이 됐어요. ‘한국적인 나의 라임오렌지나무’죠. 우리 정서와 좀더 가깝게 하려는 시도인 셈이에요.”

이세룡씨가 데뷔작으로 내놓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는 7월말에 개봉될 예정인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전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스스럼없다. 영화에 대한 양영희씨의 관심도 높은 편이어서 최근에 본 감동적인 영화로는 터키감독 일마즈 귀니가 옥중에서 만든 「울」을 꼽았다. 것처럼 좋은 영화가 흥미위주의 미국영화에 중독된 한국관객에게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때로는 철야근무까지 불사, 철저한 직장여성으로서 남성동료들을 압도할 때도 있는 양영희씨는 결혼한지 4년째인데, 앞으로 계속 둘이지만 살겠다.

— 김지원 기자



## 칠레 민요가수의 삶과 예술 빅토르 하라 傳記 「끝나지 않은 노래」

— 노래운동가 崔炳仙씨

지금 독사중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노래는 신선한 바람같다. 갈수록 소비와 향락으로만 치닫는 대중문화

속에서, 삶의 건강한 노래바람을 불어넣고자 탄생했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모임은 많은 이들에게 ‘우리노래’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고 있다. 이 「노랏사」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최병선씨(31)는 오늘도 우리의 노래를 찾느라 바쁘다. 그는 노래만큼 책과 가까운 사이가 아님도 인정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갖는 세미나 준비를 위해 들춰보는 것 외엔 사실 별로 책을 읽지 못해요. 간혹 가벼운 소설이나 수기를 읽으면서 노래에 대한 힌트를 얻기도 하죠. 책임기를 통해 느슨해지는 긴장감을 추스리기도 하구요. 이 책은 노래운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군요.”

최병선씨가 요즘 읽은 책은 칠레의 민요가수이며 문화운동가인 빅토르 하라의 전기 「끝나지 않은 노래」(차미레 옮김, 한길사)였다. 이 책은 부인인 조안 하라가 기록한 것으로, 독재정권과 미국의 문화침투에 대해 칠레민중의 정서를 담은 노래로 저항하다 끝내 총살당한 빅토르의 삶과 예술이 담겨져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성품을 지닌 빅토르가 민중과 공감대를 찾기 위해 반체제운동으로 나섰던 과정, 칠레 민속음악에 대한 열정 등이 선명하게 증명돼 있다.

“빅토르 하라는 아르헨티나의 여가수 메르세데스 소사(70)와 함께 남미의 대표적인 노래운동가수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랄까 비장함이 느껴지더군요. 독특한 칠레의 민속음악풍이 생소하면서도 친근한 것은 민중들의 생활정서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철저한 현장활동을 통해 민중들과 공감대를 가져왔던 생활태도, 서구의 향락적 문화풍토에서 칠레 고유의 가락을 끊임없이 기타로 뜯으며 노래했던 열정은 그에게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어준다.

원광대 재학시절 학내 노래팀 「혼울님」을 만든 이후 줄곧 ‘노래운동의 길’만 걸어온 셈이라는 최병선씨는 노래가 갖는 일상성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우리문화를 갖게 되리라는 믿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얼마전 TV방송공연도 대중과 좀더 가까이하려는 저희의 바람이 현실화된 겁니다. 사실 「노랏사」에서 ‘노래스타’가 나오길 기대하거든요. 구성원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어서 모든 대외업무를 도맡아 하느라 무척 바쁘지만, 열심히 땀 만큼 결과도 좋으리라 기대합니다.”

공연 때마다 편안한 사회진행으로 관객과의 호흡을 맞추곤 하는 최병선씨가 스스로 부르면서 늘 감동받는 노래는 「그날이 오면」이란 곡. 곧 있을 정기공연회(4.28~30일, 연세대 100주년기념관)와 새로 만들 2집 음반 준비로 한창 연습에 바쁜 ‘노랏사’는 얼마전 운동가요를 시대별로 정리한 노래모음집 「노래를 찾는 사람들 1」(버리)을 출간하기도 했다. 최병선씨의 소박한 소망은 ‘결혼’이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길 당부했다.

— 김지원 기자